

몸 낮추고 서로 품어주며 '통크게' '둥글게 살라'는 두륜산



'큰 둥근덩어리'라는 뜻을 지닌 대둔산(두륜산)에는 둥글게, 통크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천년 고찰 대흥사의 아름다운 전경.

〈대흥사 제공〉

세계 문화유산 대흥사

〈2〉지명과 유래

백두산의 '두(頭)·중국 곤륜산 '륜(崙)에서 나온 두륜산 두륜산 봉우리들 둥근 바퀴 닮아 바퀴 '륜(輪)으로 바껴 두륜산 옛 이름은 '한뎀'... '한'은 크다 '뎀'은 둥글다는 뜻 서로 안고 안아 둥글게 한덩어리가 된 산과 천년 사찰

울 겨울엔 눈이 내리지 않는다. 산하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본지 오래다. 그러나 눈이 없어도 겨울은 겨울이어서 나뭇의 운치가 있다. 시린 하늘과 메마른 바람은 자연 본연의 모습을 닮아 있다. 벌거벗어 오히려 성성한 나무와 맛있는 숲이 오히려 보드랍다. 역설의 미학은 그렇게 늘 곁에 있는 것이라.

갑고 구성지다. 삶과 예(藝)를 따로 두지 않는 남도사람들의 무구(無垢)한 면모다. 구름은 낮아 산그림자가 머문다.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바다의 숨이 깃들여 있다. 청량한 공기에 깃든 미미한 바다의 향기. 하늘과 바다와 땅이 가까운 듯이 웃으면서도 멀다는 얘기가. 한편으로 "두륜산은 삼재가 들어오지 않고 만세토록 파괴되지 않는다"는 서산대사의 해안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우슬(牛膝)재는 해남의 관문이다. 잿마루가 높아 소도 무릎을 꿇는다는 산마루다. 이곳 사람들 말로 '소물팍', '소무릎'이다. 고갯마루를 가족에 빚댄 옛 선인들의 수사가 정겹다. 소물팍, 소무릎이었으니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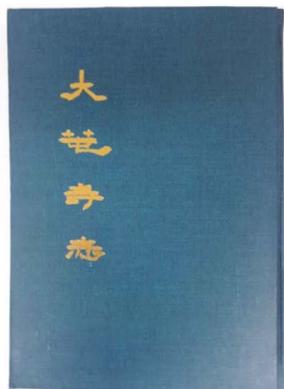
갑고 구성지다. 삶과 예(藝)를 따로 두지 않는 남도사람들의 무구(無垢)한 면모다. 구름은 낮아 산그림자가 머문다.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바다의 숨이 깃들여 있다. 청량한 공기에 깃든 미미한 바다의 향기. 하늘과 바다와 땅이 가까운 듯이 웃으면서도 멀다는 얘기가. 한편으로 "두륜산은 삼재가 들어오지 않고 만세토록 파괴되지 않는다"는 서산대사의 해안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대흥사 범종.

들으니 지세와 해남의 연관성이 하나로 껴진다. 지세와 풍수를 인문학적 사유로 풀어내니 말이다. 실전에서 지형과 전술을 터득한 이의 말은 그래서 개론서와는 다른 문리를 깨우쳐준다.

뻗쳐서 스스로가 한 판을 이루고 있으니 여는 산과도 견줄 수가 없다." "대둔사지"는 대둔산(두륜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자세히 묘사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1997년에 간행된 '대둔사지'.

남에 따르면 "두륜산을 에워싸고 있는 봉우리들이 사이좋게 연이어 있는 모습이 둥근 바퀴의 형상을 닮은 데서 유래된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보니 사방팔방의 연봉들이 사이좋게 어깨를 걸고 있다. 이쪽 봉우리에 말을 하면 저쪽 봉우리가 답을 해줄 것 같다.

습이 안온하면서도 평온하다. 맞춘하니 원래 그곳에 절이 있었던 듯 같기도 하다. 대흥사 편에서 보면 두륜산을 향해 몸을 낮춘 것이고, 두륜산 편에서 보면 안은 것이다. 안고 안아 둥글게 한덩어리가 된 모습이 저리도 아름답구나.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logos for various countries, a hearing aid ic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tore in Seoul.